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welcome!

2021. 10.



예 천 군

예천군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welcome!
□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동네인 예천군 호명면(경북도청 신도시)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역외유출 가속화○ 안정적, 영구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및 주민 중심 서비스 부재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예천고용복지센터와 협업 통한 문제점 구체화○ 수요자 입장에서 관내 기업의 채용 공고 분석 및 채용 과정 탐색○ 관내 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통한 미스커뮤니케이션 요인 분석○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양성평등 공감 콘서트를 통해 경력이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고용유지 과정 분석○ 구직 활동 과정 전반에 걸쳐 수요자가 경험하는 애로점 정리 및 정책 제언	
□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문제를 개인의 해결과제가 아닌 공동 과제로 전환○ 일자리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웰컴키트 제작 및 제공○ 경력단절과 함께 논의해야 할 돌봄, 인식개선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 <p style="text-align: center;"><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전·후 비교 ></p>	
국민디자인단 운영 前(AS-IS)	국민디자인단 운영 後(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천에서 일자리문제는 개인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공동 과제로 공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창구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취업에 대한 불안 해소하고 선택지를 넓혀주는 정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근무조건 (9 to 6 근무시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틈새 아이돌봄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맞벌이 가정의 출퇴근 시간 확보•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경력이음서비스로 진입장벽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단결근 혹은 빠른 퇴사 등 책임감 결여된 근무 태도로 인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적응 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 통한 책임감과 애사심 고취
□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전략 전달하기 단계를 통한 아이디어 갈무리 : 10월중○ 유관기관 및 부서 협의 후 시범사업 추진 : 2022. 1월초	

1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Welcome! (예천군)

과제유형	②기획 협업과제	정책분야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주관기관 (협업기관)	예천군 기획감사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과제담당자	한지혜 주무관 연락처 : 054-650-6051 이메일 : wisdom119

1 과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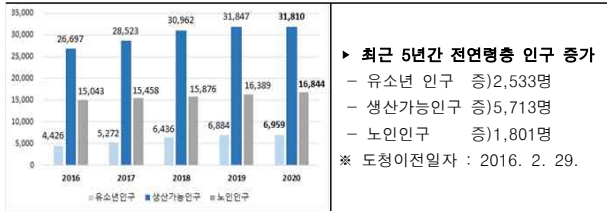
- ◆ **(사업목표)** 영구적,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 개발
- ◆ **(주 수요자)** 예천군으로 전입 후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20대 이상의 여성
- ◆ **(추진기간)** 2021. 4월 ~ 10월
- ◆ **(소요예산)** ('21) 22백만원(전액 군비, 국민정책디자인 운영예산)
- ◆ **(추진내용)**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예천고용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문제점 구체화
 - 수요자 입장에서 관내 기업의 채용 공고 분석 및 채용 과정 탐색
 -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 심층 인터뷰 통한 미스커뮤니케이션 요인 분석
 - 경력단절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양성평등 공감 콘서트를 통해 경력이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고용유지 과정 분석
 - 구직 활동 과정 전반에서 수요자가 경험하는 애로사항 정리 및 정책 제언
 - (취업전) 예천군에서의 경력단절은 가족의 직장이전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경험으로, 이 과정에서 수요자는 자신의 일을 포기하는 박탈감 느낌 낯선 환경에서 일자리, 정주 환경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데 어려움 경험 ⇒ **환영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웰컴키트와 함께 정보 제공**
 - (구직중) 가사, 육아에 대한 부담과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 죄책감을 느낌 ⇒ **일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및 직업 훈련, 돌봄 서비스 투 트랙 제공**
 - (구직후) 낯선 조직 문화, 고용주와의 미스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또다시 박탈감을 느끼고 자신감 상실 ⇒ **경력이음활동에 성공한 취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 서비스 제공**

2 추진배경

- 예천군 전입 인구의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정착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 개발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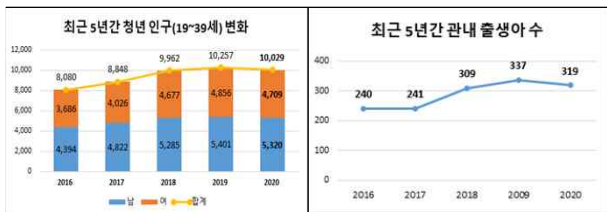
□ 예천군 호명면 현황

-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2016) 이후 **도내 유일 인구 증가 도시**
- 최근 5년간 **총연령층(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 증가**



- **평균연령 32.6세,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동네**

-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 중 40대 이하 비율 80.7%(16,67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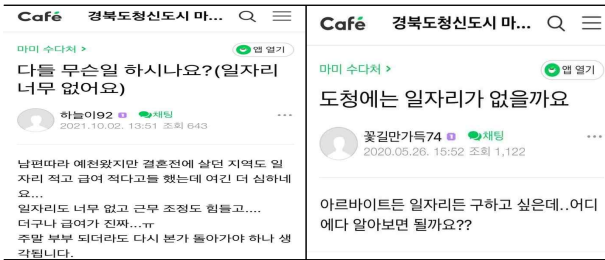


- 경북도청 신도시 이주 이유 : 직장이동(42.6%)

-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가족(배우자)을 따라 정착하는 청년 여성 인구 증가세

□ 문제점

- 고용서비스 만족도 ZERO : 일자리 때문에 왔다가 일자리 때문에 떠난다
 - 일자리 문제는 지역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응답자 53.3%)
 - 울초 경북광역여성새일센터, 예천고용복지센터 연이어 개소했으나 지역 주민 인지도 저조
 -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 부재 → 맘카페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정보 취득에 의존
 - 농업 또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는 도시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며 일자리 미스매칭 가속화
 - 특히 경제활동과 육아, 가사를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 구직자가 원하는 근로조건과 기업이 제시하는 근로조건 간 간극 발생으로 구직-구직난 심화



- 안정적, 영구적 정착을 위한 인프라 및 주민 중심 서비스 부재
 -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1단계 사업(예천 지역)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주민이 원하는 생활 인프라(병원, 학교 등) 및 각종 서비스(돌봄, 교육) 부족으로 지속적인 민원 증가
 - 전입주민이 대다수인 경북도청 신도시에는 지역 실정을 파악하는 주민 활동가 부재, 커뮤니티 비활성화
- 신도시 2단계(안동 지역) 조성될 경우 인구 이동 가능성 중대

3 추진내용

이해하기

- 발대식 및 킥오프 미팅
 - 국민정책디자인과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개념, 과제 공유 과정 추진



○ 예천군에서 경험하는 문제 상황 및 이슈 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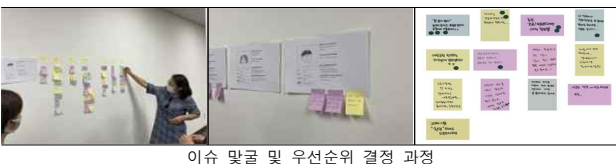
- 정주여건에 대한 이슈 발굴 및 우선순위 설정

▶ 정주여건에 대한 이슈

- 전공 및 예천군 전입 전의 직무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프로그램 필요
- 예천군청 워크넷 정보 질 관리 미흡
- 생활정보를 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맘카페 의존도 심화
-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운동 프로그램 및 문화/여가시설 필요
- 열악한 교통편으로 자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움
- 병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 부재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은 편

▶ 도출된 이슈들 가운데 우선순위 결정

- 일자리 > 의료시설 > 교통 > 여가 > 교육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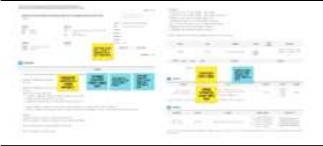


⇨ 조사 목표 설정

- (어떻게 하면) 예천군에서 일자리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예천군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발견하기

- 수요자 입장에서 관내 **기업의 채용 공고 분석 및 채용 과정 탐색**
 - 구직자들이 경험하는 채용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일자리와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탐색
-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 알아보기
 -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자리사업에 대한 인지도 파악하기
 - 수요자의 일자리 욕구와 부합하는 사업인지 의견 나누기



▶ 수요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채용공고를 분석하고 수요자가 정말 원하는 일자리인지 수요자는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지 상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 실시

- **기업 인사담당자 및 핵심 수요자 심층 인터뷰**
 - 관내 **기업 7개소 인사담당자 및 20대 후반 여성 대상 FGI 실시**
 - 위 두 과정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일'에 대한 입장차이가 구직-구인 활동에 부정적인 경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 확인
 - (수요자) 구직 시 자녀의 등하원, 돌발 상황 등에 대처가능한 근무시간 조정을 기대하지만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인식·행동
 - (기업) 수요자가 근로자로서 권리는 주장하나 업무체계 무시, 근태 불량 등 의무는 다하지 않는 상황에 불만 호소



기업 인사담당자 인터뷰

수요자 FGI

⇒ 예천군민에게 일이란 **만족하지 못하는 사회활동**이자 **지역을 떠나게 하는 동기**

정의하기

- **일자리 서비스의 핵심 수요자 구체화**
 - 핵심 수요자 퍼소나 2명 설정(42세 주부 김희영 / 28세 취준생 이효진)
 - 핵심 수요자가 정의하는 일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저는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싶어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야근수당, 주휴수당 같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당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연차도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구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규직 일자리예요. 근데 예천에 이런 곳이 있기는 해요?" - 핵심 수요자 인터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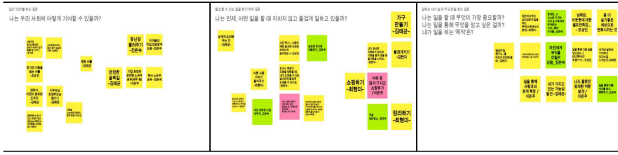
- 핵심 수요자는 전형적인 경력단절여성이면서도 가족의 직장이전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을 포기해야 했던 박탈감을 감당하고 있음
- 핵심 수요자의 구직 활동 과정 공유하며 핵심 문제 정의

사전 경험	본경험	사후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인이나 맘카페를 통해 구직 정보 습득 - 개인적인 대인관계가 채용 시 기준으로 작용 -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공서에 취업이 쉬움 - 나의 역량보다는 수요가 많은 일자리 선택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 노동 중심의(제조업) 일자리는 현지 꺼려짐 - 일을 선택했을 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움 - 근로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구직 실패 경험 발생 - 고용주에 대한 평판이 구직에 고려사항으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경험에서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던 만큼 조직문화를 익히기 위한 눈치 필요 - 가사, 육아에 대한 고용주와의 미스커뮤니케이션 걱정

⇒ 핵심 수요자들은 구직 활동 중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동시에 스스로 **'환영(welcome)받지 못하는 존재'** 라고 느끼고 있음

발진하기

- 기존 정책들이 규정하던 **일의 개념을 확장**하는 활동 수행
 -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수요자가 공감하는 일의 의미 설정



일의 의미를 찾는 질문, 물입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한 질문

- 핵심 수요자를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AS-IS 경험 시나리오 작성
 - 핵심 수요자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How Might We 진행

<p>간염마 #취업지원 어르신 #구직준비 부족</p> <p>AS-IS</p> <p>부모는 종교고사 기간이라 주말 근무를 병주고 아침에는 손발의 출근 준비를 느느라 정신이 없다. 신발을 옮기거나 아이들 아편이 준비 보내고 돌아오니 집은 폭탄이 되어있었다. 돌아오면서 취업 원소를 현대라니 이렇게 지내는 삶 말고 애정처럼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정 홈페이지 지어서 일자리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지만 원하는 일이 없었고 고민이 수근했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 관한 지원도 받아야하는데 이것도 걱정이 많아 된다.</p>	<p>한새덕 #경력 단절 어르신 #사회적 고립</p> <p>AS-IS</p> <p>예전에 와서 1년 동안 구직을 해왔는데 대형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문경의 작은 출판사에서 최저 시급 9 to 6, 상여금 200%의 조건으로 구직만이 들어왔다. 작은 사업장이라 회계, 청소까지 직접 해야는 상황인데 내가 아예 공부하고 경력도 있는데 이 일을 받아야 아니 싶었다. 그래도 일이라는 게 하고 싶어서 남몰래 아이들을 챙기고 싶고 경력 쌓는 것은 좋지만 2세 문제도 근무 때문에 썩 마음에 들어라진 않는 눈치였다. 사회도 노동 2세 문제도 내가 다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데 일과 육아, 둘 다 할 수 없는 걸까?</p>
<p>정대표 #불량한 근무 태도 #기업 상용의 어려움</p> <p>AS-IS</p> <p>크로니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못 느끼게도 오래했다. 출근할 시간이 되니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할머니가 오셨다. 아이와 나는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했는데 9시까지 출근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생산량을 못 맞추면 내 일일봉급이 행동이 그 기업 직접 대신 일을 하기 로 했다. 그 사이 어가 직업에 전향하면 년 경도 받지 않는 도 오전 에 상용화 관련 중요한 대담이 있는데 미뤄야 하는 걸까?</p>	<p>이무름 #임대차 보상 부족 #불량한 근무 태도</p> <p>AS-IS</p> <p>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는 생각이 항상 똑같다. 출근하기 싫다. 대표님이 항상 5-10분 일찍 오라고 하는데 왜 일찍 가라는지 잘 모르겠다. 주말에 일한 수령은 제대로 할 거 주겠다? 라는 걱정이 앞선다. 내가 어기 서 일하 고 그 말에 공부 한 게 아니 데, 이거 받자고 일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 예전 에 제보 만 타 기 도 없는 거 같고... 출근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프다고 하고 가지말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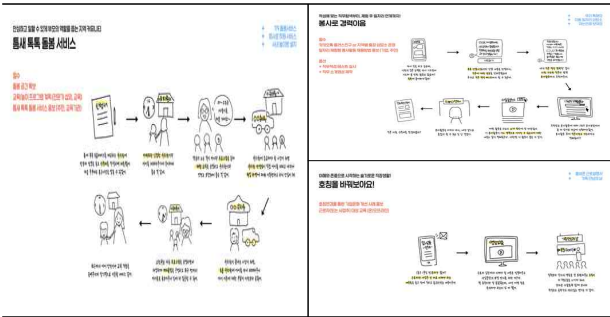
육아	- 어떻게 하면 출산 후에도 일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부재 시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가사	- 어떻게 하면 육아와 가사에 일의 의미와 가치를 담을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가사로 인한 피로, 시간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까?
기업 문화	- 어떻게 하면 근무 조건이나 태도 등을 서로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근로자의 몰입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주체성	-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사회적(가정, 이웃, 지역 등) 역할을 선택할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일여 시간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
가족	- 어떻게 하면 일에 대한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아빠의 육아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
정보 탐색	- 어떻게 하면 내 근로 여건에 부합한 일을 찾을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내 역량을 백분 활용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생생한 취업 정보와 노하우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

전달하기

- 경력단절에서부터 재취업, 고용유지에 이르기까지 구직 활동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 18건 도출

<p>11 119 아이돌봄 서비스</p> <p>서비스 대상 대상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p>	<p>13 봉사로 경력개척</p> <p>서비스 대상 대상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p>	<p>15 호칭을 바꿔주세요!</p> <p>서비스 대상 대상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p>
--	--	--

- 비슷한 내용을 결합·보완하여 최종 아이디어 4건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 **당신의 새출발을 「웰컴」 키트** : 전입 물품과 함께 일자리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홍보물, 컨택포인트를 키트로 구성
 - **봉사로 경력이음** : 직무탐색 → 체험 → 일자리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 **틈새 톡톡 돌봄** :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부모 역할을 돕는 서비스
 - **호칭을 바꿔보아요** : 이해와 존중으로 시작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 경력이음, 제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에 위 아이디어 접목하여 실현가능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 토의

< 주요 추진현황 및 계획 >

연도	주요 추진사항	소요 예산(백만원)
'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 아이디어 도출 및 확정 ○ 시범 운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구체화 	○ 20
'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범 운영 ○ 「새출발을 웰컴키트(안)」 제작 ○ 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돌봄 서비스 추진 	○ 150
'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피드백 반영 후 보완 사업 추진 	○ 150

4 국민정책디자인 운영 성과

가.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현황

구분	성명/하는 일	역할
국민	김혜경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정책 개발 관련 전문가 의견 제시
	진은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취업상담사)	
	이은주 (고용복지센터 취업상담사)	
	정분선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예천지회장)	○ 시민단체 및 독서지도사로 활동 ○ 예천군에서 스스로 성공적으로 정착한 경험 공유 및 의견 제시
	황영숙 (식품제조업체 운영)	○ ㈜농부창고 운영 ○ 고향으로 내려와 창업에 성공, 기업 운영 경험 공유 및 의견 제시
	최형미 (프리랜서)	○ 예천군으로 이주한 후 경험한 변화 공유 및 의견 제시
	조상인 (프리랜서)	○ 예천군 정착을 위해 자신의 직무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경험 공유
서비스 디자이너	김태균 대표 (㈜버저블엑스)	○ 퍼실리테이터 : 서비스디자인 워크숍 기획 및 운영
	정현수 연구원 (㈜버저블엑스)	○ 서비스디자인 워크숍 운영, 관찰조사 및 인터뷰 진행
공무원	김현자 팀장 (예천군 기획감사실)	○ 국민정책디자인단 총괄 운영 및 관리
	한지혜 주무관 (예천군 기획감사실)	
	윤은영 팀장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	○ 정책 현황 공유 ○ 국민정책디자인단 참여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아이디어 구체화, 사안화 방안 마련
	김수진 팀장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나. 국민정책디자인단 추진 성과

□ 주민-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낸 예천군 최초의 도전 과제

- 예천군 최초 주민참여형 정책 개발 사업이자 유관기관 협업 사업
 - 이전에 지역에서 한 번도 공론화되지 않았던 과제 선정
 - 경북도청 신도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 선정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예천고용복지센터와 최초의 협업

□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기 존)
 - 지인, 맘카페 등 비공식적 창구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 습득
 - 유사한 정보를 찾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상황의 피로감
- (변 경)
 - 전입신고 시 일자리 정보와 일원화된 컨택포인트를 담은 키트 선물로 정보 및 환영의 메시지 전달
 - 2022년도 시책인 챗봇,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오픈 사업과 연계하여 창구 일원화 시도

□ 기업-구직자 간 miskommunikat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 문제 감소

- (기 존) 일자리 문제는 기업과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적영역
- (변 경) 사내 적응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지원하여 갈등 예방

□ 경력단절여성이 일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고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마련

- (기 존) 구직활동 전과정에서 고립, 박탈감 등 경험하며 사회 복귀 포기
- (변 경) 봉사활동 등을 통한 직무체험, 틈새돌봄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자기발전, 자기만족 기회 제공

□ 정책수요자 입장과 감정을 고려한 정책 발굴

- (기 존) 수요자,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발굴 및 추진
- (변 경) 전문가의 노하우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과정을 통해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감정 고려한 정책 발굴 계기

□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진짜 문제 발견

- 경력단절여성, 지역 청년, 관내 기업, 전문가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경험하는 ‘진짜’ 문제 발견 계기
- 예천군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보완점, 문제점 청취 기회

□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반영할 정주여건 문제점 공유

- 일자리 문제 외에도 주민들이 경북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국민디자인단 운영 前(AS-IS)	국민디자인단 운영 後(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천에서 일자리문제는 개인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공동 과제로 공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인 창구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취업에 대한 불안 해소하고 선택지를 넓혀주는 정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근무조건 (9 to 6 근무시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틈새 아이돌봄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맞벌이 가정의 출퇴근 시간 확보 •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경력이음서비스로 진입장벽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결근 혹은 빠른 퇴사 등 책임감 결여된 근무 태도로 인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 적응 프로그램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책임감과 애사심 고취

다.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시 미흡한 점 및 향후 개선방안

□ 미흡한 점

-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처음이라... 시행착오의 연속
 - 국민정책디자인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으로 서비스디자이너 의존도 심화 → 서비스디자이너의 업무 과중
 - 해당 사업의 생소함으로 단원 모집에 오랜 시일 소요되어 추진 지연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워크숍 이루어지지 못함
 - 8회에 걸친 워크숍 중 발대식을 포함한 3회만 대면으로 진행
 - 줌, 줌보드 등 영상회의 툴에 익숙하지 못한 단원이 대부분이어서 안정화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

□ 향후 개선방안

- 혁신 업무 추진 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주제로 한 직무교육 실시
-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직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전 교육 실시

5 향후 추진계획

□ 아이디어에 대한 디자인과정 마무리 및 보완 작업

- 9-10차 워크숍에서 실행전략 전달하기 단계 마무리 : 10월중
- 아이디어별 사업계획서 구체화 및 유관기관/부서 협의 : 11월중
- 최종 사업계획으로 핵심수요자 대상 간담회 추진 : 12월중

□ 웰컴키트 제작 등 시범사업 추진 준비

- 인구관련 부서, 읍면 협조로 「당신의 새출발을 웰컴」 키트(안) 제작
- 유관기관/부서 협업으로 구직서비스 일원화 사업 추진(2022 시책 연계)
- 기업 선정하여 봉사로 경력이음 등 시범사업 추진
- 틈새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돌봄 제공 기관과 협의

6 홍보실적 및 계획

□ 과제 관련 주요 언론보도

- 예천군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개최



내외일보, 영남일보 등 지면 및 온라인 뉴스 보도

- 예천군 국민정책디자인단 6차 워크숍 개최



경상매일신문, 지면 및 온라인 뉴스 보도

첨부1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실적 및 단계별 산출물**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실적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1차	2021. 6. 14. 14:00~17:00	예천군청 중회의실	국민정책디자인단 단원 11명
2차	2021. 6. 29. 14:00~17:00	경북여성가족플라자	국민정책디자인단 단원 10명
3차	2021. 7. 19. 14:00~17:00	비대면 온라인	국민정책디자인단 단원 11명
4차	2021. 8. 3. 14:00~17:00	비대면 온라인	국민정책디자인단 단원 11명
5차	2021. 8. 26. 14:00~17:00	비대면 온라인	국민정책디자인단 단원 12명
6차	2021. 9. 16. 09:30~13:00	예천군청소년수련관	국민정책디자인단 단원 12명
7차	2021. 9. 28. 15:00~18:00	비대면 온라인	국민정책디자인단 단원 12명
8차	2021. 10. 7. 10:00~13:00	비대면 온라인	국민정책디자인단 단원 11명
9차	2021. 10월중 예정	-	
10차	2021. 11월중 예정	-	

□ 국민정책디자인단 단계별 산출물

구분	단계별	주요 활동내용	산출물
1차	1단계 (이해/발견하기)	① 서비스디자인 이해하기 ② 킥오프 미팅	- 이해관계자 소개 퍼소나
2차	1단계 (이해/발견하기)	① 이해관계자 문제 상황 살펴보기 ⇒ 문제 상황 구체화 ⇒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 이슈 선정	
3차	1단계 (이해/발견하기)	① 퍼소나 모델링을 통한 '일자리'정책 서비스의 핵심 수요자 구체화 및 '일자리'에 대한 가치 파악 ② 예천군 일자리 정책 서비스 주 기관/부서 정리	- 핵심수요자 퍼소나 - 이해관계자 지도
4차	1-2단계 (이해/발견하기-정의하기)	① 20대 예천군민 포커스그룹 인터뷰 공유 :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무가 예천군 내에 없으며, '워라밸'을 중요시 ② 핵심 수요자 일자리 관련 서비스 경험 (사전-본-사후)파악 ③ 지역정책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공유 및 보완	- BMC(Business Model Canvas)
5차	2단계 (정의하기)	① 예천군 소재 기업 인사담당자 인터뷰 내용 공유 ② 여성 일자리 경험 핵심 이슈 공유 ③ '일'의 의미 재정비	
6차	2-3단계 (정의-개발하기)	① 핵심 수요자 관점에서 핵심 문제 정의 : 육아활동, 직업 편견, '일'의 의미 결여 ② 핵심 수요자 경험 시나리오 작성 ③ 문제점을 질문으로 바꾸기 ④ 아이디어 도출	- AS-IS 시나리오 - HMW(How might we)
7차	3단계 (발전하기)	① 아이디어 보완 방향 설정 ② 각각의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결합하여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로 구체화	
8차	3-4단계 (발전-전달하기)	① 아이디어 스토리보드 공유 ② 아이디어별 사례 소개 ③ 아이디어 소개 포스터 작성을 통해 아이디어의 세부 내용 구체화	- 스토리보드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총평

- [전문가]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고 해결가능성이 크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우리 지역의 언니, 청년, 기업이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하여 각자의 시각으로 문제점을 해석하고 대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집단 지성의 결정체처럼 느껴졌다. 경력단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인 만큼, 여성 일자리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 [수요자] 내가 운영하는 (주)농부창고에는 경력단절여성만 일하고 있다. 나 또한 경력단절을 경험했던 여성으로서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나와 우리 직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다. 경력단절이라는 현상 이면에는 가족과 돌봄, 기업 문화와 근무 조건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 활동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꼭 (주)농부창고에 적용해보고, 신도시 여성들의 재도전을 힘껏 응원할 것이다.
- [수요자]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족 돌봄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의 직장 이전이 확정되었을 때, 모두 내가 일을 그만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자 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하나도 없었다. 신도시에 있을 또다른 ‘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
- [공무원]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중앙부처 혹은 경북도에서 시달되는 모든 시군의 공통사업이다. 이 사업들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업무 과중을 이유로 미처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단원으로 참여하며 자체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더없이 귀한 시간이었다.

□ 국민정책디자인 활동 성과

- (주민참여) 국민정책디자인단 활동에서 도출된 주민 의견 개진
 - 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 주민의견수렴 과정에 반영

